

# 《神仙傳》의 서사 모티프 고찰

— 吳光正의 연구에 대한 검토

권영애\*

## 〈目 次〉

1. 서론
2. 《神仙傳》의 해당 작품 검토
  - 1) 下凡歷劫
  - 2) 成仙考驗
  - 3) 濟世降妖
3. 결론

## 1. 서론

주지되어 있듯 모든 개별 작품과 작가 연구는 궁극적으로 문학사를 지향한다. 문학사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微視에서 벗어나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를 확보하여 한 시대를 풍미한 패러다임을 규정하며 시기를 구획할 수 있고, 일정한 체계에 의거하여 모든 개별 작품의 가치와 작가의 위상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사의 이러한 효용에 기여하려는 연구의 하나로 모티프 탐구가 있다.<sup>1)</sup> 새삼스럽지만 모티프는 특정 낱말, 문장, 비유, 기교, 캐릭터, 소도구,

\* 건양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부교수

1) 중문학계의 모티프 연구는 지난 세기 말엽에 활발하였다. “20세기 80년대에 고대문학 연구에서 모티프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모티프와 그 관련 개념에 대한 토론도 자주 신문 잡지에 출현하였다(20世紀80年代以后古代文學研究中母題研究比較紅火, 關於母題及其相關概念的討論也常常出現于報紙雜誌.)”, 朱迪光, 《信仰·母題·叙事-中國古典小說探索》,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91쪽. 주요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929년 淸水の〈中西民間故事的比較〉(《民俗》, 제65기) 이래, 1982년 劉魁立的《世界各國民間故事類型索引述評》(《民間文學論壇》, 창간호), 1988년 吳子敏의《論

서사방식 등 다양한 국면에 걸쳐 있으며 역대 작가들은 이들을 활용하고 변용하며 작품을 창작한다.<sup>2)</sup> 문학작품은 서로 다른 개성이 있는 창작이면서도 前代의 성과가 내포되어 있기에 과거도 있는 존재이며 또한 미래의 자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출몰하는 모티프들의 來源과 演變의 과정을 파악하면서 각 시대 작품들의 계열화를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고, 모티프의 창안과 모방, 부연과 확대 등을 기준으로 작품과 작가의 상호연관을 보다 잘 질서화 할 수 있으며,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작품을 잘 분석하여 문학사에 적절하게 편입시킬 수 있다.

서사 모티프는 작품의 서사구조를 부각시켜주기에 여러 모티프들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선 관련 작품의 서사 모티프는 그 대체가 이미 정립되어 있다. 吳光正은 2002년에 발간한 저서에서 神仙 작품의 서사 모티프로, ‘下凡歷劫’、‘悟道成仙’、‘成仙考驗’、‘濟世降妖’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sup>3)</sup> 이 성과로 신선 작품의 기본 서사 모티프가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

新時期小說的母題及其文化價值觀念》(《小說評論》, 第5期), 1997年 陳建憲《論神話學的基本概念與方法》(《湖北民族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2期), 2001年 呂徽의《神話何爲—神聖敘事的傳承與闡釋》(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年 譚桂林의《論長篇小說研究中的母題分析》(《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第30卷 第6期), 2002年 譚桂林의《長篇小說與文化母題》(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03年 劉守華의《比較故事學論考》(黑龍江人民出版社) 등이 있다.

2) 王立은《中國文學中的主題與母題》(《浙江學報》2000年 第4期)에서 다음과 같이 모티프를 주제와 대조하며 그 개념과 의의를 규정한다. “첫째, 모티프는 비교적 구상성을 가지고 있고 주제는 추상 개념이다. 둘째, 모티프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성적이지만 주제는 모티프의 출현과 그 특정한 조합 때문에 모종의 의미를 현시한다. 주제는 이렇게 작가의 주관성과 성향을 융합 제시한다. 셋째, 주제의 數目은 많지만 모티프의 數目은 제한적이다. 넷째, 상술한 몇 가지로 하여 다민족, 다문화와 비교할 때, 모티프의 착안점은 동일한 것에 편중되고 주제의 착안점은 차이에 편중된다.” 朱迪光, 같은 책, 91쪽에서 재인용.

3) 吳光正,《中國古代小說的原型與母題》,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13쪽. 이 용어들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생경할 수 있겠지만 중문학에 종사하는 전문 독자들에게는 그 수용이 무난할 것이며 한국과 중국학계의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는다. 朱迪光은 오광정의 이 저서에 대해, “중국 고전소설에 원형이 있는가와 그것의 모티프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문제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오광정의《中國古代小說的原型與母題》는 이 문제를 연구한 저작이다.”며 오광정의 모티프 연구를 원형 탐구와 관련시켜 주목하였다. 朱迪光,《信仰·母題·敘事中國古典小說探索》(北京·中國社會

며, 이들은 연구자들의 작품 통찰에 기여하면서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仙話 발생 이래 청대에 이르기까지 신선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이 연구가 전범이 된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적어도 이 부문 연구에서 향도로서의 역할과 의의는 내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오광정은 연구에 앞서 연구의 전제로 다음과 같이 서사 모티프와 서사유형을 규정하였다.

하나의 모티프는 이야기의 최소 성분이고 전통의 차원에서 지속되는 성분이다.<sup>4)</sup>

유형은 完整한 하나의 이야기로 몇 모티프가 일정한 순서로 조합된 것이다. 유형은 모티프 서열, 혹은 모티프 연쇄이다.<sup>5)</sup>

즉, 서사 모티프는 여러 작품들에서 서사 진행을 촉진하는 반복되는 기초 단위이며, 유형은 그 조합으로 구성된 하나의 양식으로 역시 지속되는 서사 구성체의 기본 틀이라는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下凡歷劫、悟道成仙、成仙考驗과 濟世降妖는 도교 선화의 4대 서사모티프이며 도교 선화의 4대 핵심 고사유형이다.<sup>6)</sup>

본문에서 연구한 故事類型은 대부분 한 개의 모티프로 구성되며 이러한 모티프들은 매우 강한 내포성을 갖추고 있고 무한한 인생을 용납할 수 있다.<sup>7)</sup>

科學出版社, 2007), 91~92쪽.

4) “一个母題是一个故事中最小的、能够持續存于傳統中的成分.” 이 규정은 Stith Thopson의 정의(Stith Thopson, 《세계민간고사분류학》, 상해역문출판사, 1991, 499쪽)를 따른 것이다. 오광정, 같은 책, 9쪽 참조.  
5) “類型是一个完整的故事, 是由若干母題按相對固定的一定順序組合而成的, 它是一个“母題序列”或“母題鏈.” 이 규정 역시 Stith Thopson의 정의(Stith Thopson, 같은 책, 499쪽)를 따른 것이다. 오광정, 같은 책, 10쪽 참조.  
6) “下凡歷劫、悟道成仙、成仙考驗、濟世降妖是道教仙話的四大敘事母題, 也是道教仙話的四大核心故事類型”, 오광정, 같은 책, 13쪽.  
7) “本文所研究的故事類型大部分都是由一个母題構成, 這些母題具有很强的包孕性, 能够容納无限人生”, 오광정, 같은 책, 10쪽.

즉, 下凡歷劫、悟道成仙、成仙考驗、濟世降妖는 신선 작품들의 서사 모티프이면서도, 고사유형이며, 각각 다뤄지는 삶의 내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총괄은 분명 귀납 연구의 성과일 것이며 후대 작품의 분석과 분류에 크게 도움을 준다.

오광정은 이 연구에서 《신선전》(葛洪 283-363)을 주목하며 下凡歷劫、成仙考驗、濟世降妖, 세 모티프를 다루었다.<sup>8)</sup> 이에 의거하여 《신선전》 연구의 일환으로 《신선전》의 해당 작품들을 검증해본 결과, 연구에 몇몇 문제점이 있었고, 몇몇 보완할 사항이 있었다. 세 모티프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후대 작품들의 분석과 분류에서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을 제안하려 한다. 즉 오광정의 예시에 동의할 수 있는 작품은 동의하고, 이견이 있는 작품은 문제 작품으로 삼아 그 문제점을 검토하며, 예시에서 생략되었지만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으면 제시하고, 분류체계가 미흡하다고 여겨지면 보완점을 제언하려 한다.

주지되어 있듯 역대 신선 작품의 전개에서 《신선전》은 繼往開來의 위상을 갖는다. 《신선전》에서 造型된 세 서사 모티프는 후대 신선 작품들에서 지속되고 있기에 그 분석을 위해서라도 《신선전》의 세 서사 모티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神仙傳》의 해당 작품 검토

서사 모티프는 작품 분석에서 추출한 귀납이기에, 예시 작품은 모티프 추출

8) 悟道成仙 모티프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 모티프가 당대에 이르러 활성화되었으며 《신선전》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광정은 이 모티프에 대해, “인생이 꿈같다는 감촉에서 자신의 실의에 빠진 경우와 세상에 등용될 지향과 세상을 풍자하는 심리상태와 정치 이상을 토로하였다.(在人生如夢的感觸中將自己的落魄境遇和用世志向、刺世心態和政治理想宣洩出來)”고 하였다.(같은 책, 13쪽) 이 모티프의 사례로 예시한 작품은 초기는 《莊子·在宥》, 《列子》, 《幽明錄·楊林》이며, 당대의 〈枕中記〉, 〈南柯太守傳〉, 〈櫻桃青衣〉, 송대 화본 〈黃梁夢〉, 〈大槐王〉, 원대 잡극 〈枕中記〉, 〈黃梁夢〉, 청대 〈紅樓夢〉 등이다.(오광정, 같은 책, 137-168쪽)

을 가능하게 한 근거이다. 오광정은 서사 모티프를 제시하고 관련 고사와 작품을 예시하였는데, 이러한 예시에서는 당연히 가장 이른 시기의 제대로 된 작품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신선전》을 주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주지되어 있듯 《신선전》은 《열선전》이 없었다면 그 출현이 어려웠지만, 《신선전》에는 서사와 대화와 지문이 확대되고 작중에 현실의 구체성이 부여되는 등, 《열선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이 등장한다.<sup>9)</sup> 후대 관련 작품들에 끼친 영향력은 《열선전》을 능가한다고 할 것이다. 오광정이 《신선전》에서 주목한 작품은, 下凡歷劫으로는 〈壺公〉, 成仙考驗으로는 〈李八百〉 〈李阿〉 〈陰長生〉 〈張道陵〉 〈魏伯陽〉 〈陳安世〉 〈薊子訓〉 〈劉安〉이며, 濟世降妖로는 〈壺公〉 〈費長房〉 〈張道陵〉 〈欒巴〉 〈葛玄〉이다.

#### 1) 下凡歷劫

下凡歷劫을 오광정은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천국의 신선이 모종의 계율을 위반하여 인간세상으로 귀양 오게 되는 서사유형 ... 이런 고사유형의 기본 줄거리는 신선이 홍진의 유혹을 받아 인간세계로 왔다가 특히 화류계 홍동가에서 온갖 재난을 겪게 되고, 마침내 홍진을 간파하고 다시 천계로 되돌아간다는 내용이

9) 우찌야마는 구성 확대, 새로운 일화 첨가, 지식인 수도자 증대, 수행담, 秘籍과 이론, 도술 증량을 주목하였고(內山知也, 〈仙學の展開〉, 《大東文化大紀要》, 日本 1974, No. 13, pp. 110-111.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민음사, 2005), 111-112쪽 참조). 전인초는 중국소설사의 관점에서 《신선전》의 〈白石生〉, 〈左慈〉의 인물 구성 주제를 검토하며 《신선전》이志怪양식의 속성을 담고 있는 중국소설 형성기의 주요 작품집이며, 唐代 傳奇의 출현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神仙傳研究》, 《연세논총》 1985, 65쪽). 한경아는 〈老子〉, 〈彭祖〉, 〈劉根〉 등을 검토하며 설화성을 경신한 서사요소의 발전 양상을 검증하였으며(《神仙傳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67-89쪽), 그 과정에서, 李劍國의, 작품의 길이, 주인공 행적 부연, 문장의 분석성 주목(《唐前志怪小說史》, 南開大學校 出版部, 1984, 318쪽)과 侯忠義의 상황 묘사 내용 증가 구조 확대 주목(《中國歷代小說辭典》, 雲南人民出版社, 1986, 40-41쪽)을 소개하고 있다. (67쪽, 82쪽). 한편, 영물의 변화와 발전 양상도 확인하였다. (참고, 《신선전》 영물의 변화와 후대의 지속 양상》, 《중국문화연구》 1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 12, 117-146쪽 참조)

다.<sup>10)</sup>

下凡歷劫의 핵심은 '자아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천상에 선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신선도 그곳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양을 간다는 사실이 그 전제에 내포되어 있다. 선계에서 지상으로 귀양 온 신선은 세속의 여러 유혹과 재난을 겪는다. 그러다가 마침내 각성하고 선계로 귀환한다는 모티프이다. '자아회복'이 강조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이 신선이 되는 일반 성선담과 다르며 작중 현재에 주인공은 신선이면서도 인간인 이중성을 가진다. 오광정은 下凡歷劫에 대해 다음처럼 부연하였다.

下凡歷劫 형 고사의 원형은 상고시대 巫師가 신을 이 세상에 강림하게 한 通神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通神활동류는 조기의 下凡濟世 전화를 파생시켰고, 下凡濟世 전화는 후대에는 降凡歷劫 전화로 변화 발전되었다.<sup>11)</sup>

즉, 下凡歷劫은 나름대로 통괄 모티프인데, 그 초기 형태는 下凡濟世이고 下凡濟世는 降凡歷劫으로 이행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광정은 다시 下凡濟世와 병렬하여 下凡歷劫의 초기 형태로 謫世度脫을 제시하며 《신선전》에서 謫世度脫의 사례로 <壺公>의 호공을 들었다.

早期 仙話 고사 중에서 神仙下凡是 凡人을 도와 수도성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仙話의 창작은 자연스럽게 仙話의 宗教功能을 부각시켰다. 그 종교공능의 첫째 표현이 謫世度脫이다. 《萼綠華》에는 여선 악록화가 양권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구악산에서 득도한 羅郁이다. 운명이 정해질 때 師母를 위하여 유모 玄洲를 독살하였다. 先罪가 아직 소멸되지 않아 잠시 낚새나고 혼탁한 곳에 謫降하여 그 허물을 배상

10) “天國神仙由于触犯了某种戒規被貶謫下凡作爲一种叙事類型…。這些神仙出于紅塵的誘惑來到人間，在富貴場、溫柔鄉中經歷了一番劫難，最后看破紅塵重上天界成了這一故事類型的基本清節”，오광정, 같은 책, 103쪽 참조.

11) “下凡歷劫型故事的原型可以追溯到遠古巫師使神降臨凡間的通神活動。這類通神活動衍生了早期的下凡濟世仙話，下凡濟世仙話在後世又演變成了降凡歷劫仙話”，오광정, 같은 책, 13쪽.

하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그녀가 인간 세상에 좌천되어 양권의 곁으로 간 것은 양권을 도탈시키려는 것이었다. …… 《太平廣記》 권12 《壺公傳》에서 호공은 비장방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선인시오. 천조에 있을 때 공무에 게을러 문책을 받고 인간 세상에 귀양 왔소. 그대는 가르칠 만하여 이 때문에 나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오” 하였다.<sup>12)</sup>

謫世度脫은 ‘凡人을 도와 수도성선하게 하려는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下凡歷劫의 개념과 연결시키면, ‘천국의 신선이 게을러 위반하여 인간세상으로 귀양와서, ‘凡人을 도와 수도성선하게 하려는 유형’이다. 따라서 謫世度脫은 下凡歷劫과 그 기본 구조가 같지만 下凡歷劫은 하강한 신선이 세속에서 겪는 이야기의 주체이며 주요 서사가 세속에서 겪는 일이고, 謫世度脫은 세속의 인물을 주요 인물로 설정하고 그를 善導하여 구제하는 것이 초점을 이루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 (1) 문제 작품: 《壺公》

오광정이 謫世度脫의 사례로 예거한 《壺公》에서 壺公은 상계 인용에서 보듯 비장방에게 자신이 세속에 귀양 온 사실과 비장방을 신선으로 인도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무난해 보인다. 그런데 《壺公傳》에서 호공은<sup>13)</sup>이라 하여 작중 주요 인물에 초점을 설정하고 있는데(《악록화》에서도 마찬가지), 이럴 경우 차치 신선유형의 연구로 여겨질 소지가 있고, 《호공》에서 적세도탈 모티프가 주력 모티프가 아닐 경우 이 예시에 대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호공》은 오광정이 총괄 언급한, ‘본문에서 연구한 고사유형은 대부분 한 개의 모티프로 구성되며’에서 제외되는 작품이다. 그런 전제에서 하범역접의 적세도탈

12) “在早期仙話故事中, 神仙下凡是爲了助凡人修道成仙。… 仙話創作自然而然地突出了仙話的宗教功能。其宗教功能的第一大表現就是謫世度脫。《粵綠華》載女仙粵綠華對羊權自我介紹說: “是九嶷山中得道羅郁也。宿命時, 曾爲其師母毒殺乳婦玄洲。以先罪未滅, 故暫謫降臭濁, 以償其過。”…《太平廣記》卷12《壺公傳》中的壺公向費長房自我介紹時亦聲稱: “我仙人也, 昔處天曹, 以公事不勤見責, 因謫人間耳。卿可教, 故得見我”。 오광정, 같은 책, 103-109쪽.

사례로 작중 호공의 행위를 예시한 것이며, 이어 제세향요의 제세 모티프를 다루면서 호공의 관련 행위를 예시하였고<sup>13)</sup>, 또 향요 모티프의 사례로 비장방의 관련 행위를 예시하고 있기도 하다.<sup>14)</sup> 그러나 〈호공〉에는 이상 모티프 들뿐만 아니라 이상 모티프를 압도한다고 할 수 있는 성선고험 모티프가 개재 되어 있어 문제시 된다. 생략된 성선고험 모티프의 서사는 다음과 같다.

비장방이 호공을 따라나섰더니 황홀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호공은 비장방을 여러 호랑이 무리 속에 남겨두었다. 호랑이들은 이빨을 갈며 입을 벌려 비장방을 물고자 덤뻐다. 비장방은 전혀 겁을 내지 않았다. 이튿날, 다시 비장방을 석실에 가두었는데 그 머리 위에는 큰 돌이 매달려 있어 크기가 몇 길이나 되었다. 겨우 띠 풀로 묶여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여러 뱀들이 그 끈을 물어 끈 끊어질 판이었다. 그러나 비장방은 태연자약하였다. 그제서야 호공이 와서 “그대는 가히 가르칠만하오.” 그리고는 변소에서 밥을 먹게 했다. 변소는 악취가 심하게 났고, 한 촌 길이의 벌레들이 있었다. 비장방이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자 호공은 탄식을 하며 그를 되돌아가도록 보내면서 “그대는 신선이 될 수가 없소. 지금 그대를 인간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삼겠소.”라고 말하였다.<sup>15)</sup>

호공은 비장방을 고험하였고, 비장방은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 13) 《神仙傳》의 壺公은 병을 걸어두고 세상을 구제하였다. 높은 의술로 남의 병을 치유해 주고 “하루에 돈 수만을 거두면 시정의 빈곤하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었다.(在《神仙傳》中, 壺公懸壺濟世, 以其高超醫術替人治病, “其錢日收數萬, 便施與市井貧乏餓凍者”)면서 호공의 관련 행위를 濟世 모티프의 사례로 제시한다. 오광정, 같은 책, 198쪽.
- 14) 濟世降妖 모티프 소개에서 오광정은 《후한서·방술전》의 〈비장방〉을 텍스트로 하여 “《신선전》에는 요괴를 잡는 능수로 이름이 난 한 대 방사로는 유빙, 비장방, 난과가, 삼국시대 방사로는 갈현 등이 있다.(在《神仙傳》中, 漢代方士劉凭、費長房、欒巴, 三國方士葛玄等人都是聞名一時的捉怪能手)”면서 비장방의 관련 행위를 降妖 모티프의 사례로 제시한다.
- 15) “長房隨公去, 恍惚不知何所之。公獨留之於群虎中, 虎磨牙張口, 欲噬長房, 長房不懼。明日, 又內長房石室中, 頭上有大石, 方數丈, 茅繩懸之, 諸蛇并往嚙繩欲斷, 而長房自如。公往撰之曰: 子可教矣。乃命噉溷, 溷臭惡非常, 中有蟲長寸許, 長房色難之。公乃嘆謝謹之曰: 子不得仙也。今以子爲地上主者, 可壽數百歲”, 갈홍 찬 / 임동석 역주, 《신선전》(서울·고즈윈, 2006), 〈호공〉, 역문 345~346/원문 349~350쪽(전고에 이어 이 책에서 《신선전》의 정비된 원문과 역문을 인용한다. 역문은 일부를 윤문하였다.)

호공은 度脫 사업을 성취하지 못 하였으며, 비장방은 결국 신선이 되지 못하고 도사류의 인간으로 남는다. 따라서 〈호공〉에서 적세도탈보다는 성선고험이 서사구조에서 더 중요한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호공의 濟世 모티프는 〈호공〉의 발단의 일부이고, 발단에 이미 성선고험 모티프의 단서에 해당하는 “비장방은 이에 매일 그 호공이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였는데 ... 이렇게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비장방은 전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호공은 비장방이 독실하고 미답다는 것을 알고 “저녁이 되어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오시오.”라고 하였고 장방은 그의 말대로 갔다”<sup>16)</sup>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성선고험의 사제관계 성립 국면이다. 그리고 호공은 비장방을 병속 선계로 데려가 자신이 신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이후 서사는 도탈 행위가 이어지지 않고 고험 행위로 변화하고 있다. 즉 적세도탈은 이 작품의 서사에서 발단을 연출하는 모티프에 해당하며, 성선고험 모티프는 전개의 후반과 절정을 담당하고, 이어지는 제세향요 모티프가 결말을 담당한다. 고험에 실패하였지만 비장방은 이전의 보통 인간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주관하는 자’, 즉 도사가 되어 세속에서 이적을 다음과 같이 시현한다.

비장방은 부적으로 귀신을 부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낮지 않은 자가 없었다. 매번 사람들과 함께 앉아 말을 나눌 때면 그는 눈을 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귀신이 범을 어기는 것을 보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일 뿐이다.” 여남군에 항상 요괴의 귀신이 출몰하였다. 그 귀신은 한 해에 몇 차례 나타나곤 했는데 ... 백성들은 이를 큰 근심으로 여기고 있었다. ... 그러자 비장방이 무서운 소리를 질러 그들을 잡아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 그러고는 다시 급히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도록 명령하여 하나의 札符를 써서 이를 붙여 그들을 葛陂君에게 압송해 보내도록 하였다. ... 동해군에 가뭄이 삼 년 동안 계속되었다. 뒤에 비장방이 동해군에 이르러 백성들이 비를 내려 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東海君이 죄를 지어 내 지난 날 그를 잡아다 갈피호 근처에 묶어 두었소. 지금 그를 풀어 주어야겠소.” 그러

16) “長房乃日日自掃除公座前地，及供饌物 … 如此積久，長房不懈 … 公知長房篤信，語長房曰：至暮無人時更來”。갈홍, 같은 책, 342~343/349쪽.

고는 동해군에게 비를 만들어 내리도록 명하였다. 그러지 즉시 큰비가 내렸다.<sup>17)</sup>

이상 검토를 종합하면 〈호공〉은 제세, 적세도탈, 성선고협, 제세향요 모티프들이 복합된 작품이고 이 조합으로 구성된 유형이며, 모티프 서열에서 주력 모티프는 성선고협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호공의 제세는 작중에서 일화이고 적세도탈은 비장방을 세속에서 도탈시키지 못 했기에 실패에 가까운 데다 서사구조 상 성선고협의 동기에 해당하며, 이어지는 비장방의 제세향요는 고협 실패의 후속이기 때문이다. 또 관점에 따라 호공은 조력자이고 비장방이 주인공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할 수 있다.<sup>18)</sup> 〈호공〉처럼 여러 모티프로 이루어진 작품은 전체 서사를 대상으로 모티프들과 그 관계를 점검하여 가장 유력한 모티프를 부각시키고 그 사례로 예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호공〉은 성선고협의 사례 예시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작품이며 오히려 부각되어야 할 작품이다. 또 〈호공〉의 복합 서사 모티프 구조를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여 제시한다면 후대 관련 작품들의 서사구조를 참조하는 데 보다 잘 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호공을 謫世度脫 모티프의 사례로 제시하더라도 성취 형과 실패 형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실패 형은 모티프 명칭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티프 내부에 그 여부를 규정한다면 작품들의 주제와 동향을 더 잘 통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2) 누락된 작품: 〈衛叔卿〉

앞에서 보았듯 오광정은 下凡歷劫의 초기 형태로 下凡濟世를 거명하였는

17) “長房乃行符收鬼治病，无不愈者。每与人同坐共語，而目暝訶遣。人間其故，曰：怒鬼魅之犯法耳。汝南郡中有鬼怪，歲輒數來，… 甚以爲患。……長房厲聲呼使捉前來… 急寔令還就人形，以一札符付之，令送与葛陂君… 東海大旱三年。長房后到東海，見其民請雨，謂之曰：東海君有罪，吾前繫於葛陂，今當赦之。令其作雨，於是即有大雨。” 갈홍, 같은 책, 〈호공〉, 346~348 / 350쪽.

18) 이러한 사정에서인지 費長房을 작품 이름으로 내건 〈費長房〉(《태평광기》 권293, 《仙佛奇蹤》 권2)이 있다.

데, 그 내포를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다.

선화 종교공능의 두 번째 구현이 下凡濟世이다. 정치형 제세는 상계의 신선이 인간 왕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였다.……도덕형 제세는 신선이 인간 중 도덕성이 고상한 자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표현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천제는 선녀를 범간에 보내어 범부와 결혼하게 하고 또 그가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돕게 하였다.<sup>19)</sup>

謫世度脫이 선계의 신선이 범을 저축하여 세속으로 추방된 일에서 비롯된다면, 下凡濟世는 선계의 신선이 세속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세속의 통치자를 지지하거나<sup>20)</sup>, 계층을 불문하고 세속의 인품이 고매한 사람과 결혼하며 조력하는<sup>21)</sup> 모티프라고 하겠으며, 전자를 정치 형 제세로, 후자를 도덕 형 제세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下凡濟世의 사례를 《신선전》에서 들지 않았다. 생략인지 간과인지 알 수 없지만, 《신선전》에서 下凡濟世 사례가 등장한다면 《신선전》이 후대 작품들의 한 원천이기에 문제시된다.<sup>22)</sup> 《신선전》에서 후자는 없지만 전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衛叔卿〉이 있다. 이 작품에서 세속의 통치자는 한 무제이다.

위숙경은 중산사람으로 운모를 복용하여 신선이 되었다. 한나라 元鳳 2년 8월 임진에 한 무제가 궁전에서 한가하게 있을 때 홀연히 어떤 한 사람이 흰 사슴이 끄는 뜰구름을 타고 궁전 앞에 멈추는 것이었다. 무제가 놀라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중산의 위숙경이라고 합니다.” 무제가 말하였다. “중산이라면 나

19) “仙話宗教功能的第二大體現就是下凡濟世。政治型濟世主要表現爲上界神仙對人間人王的支持。……道德型濟世主要表現爲神仙對人間道德高尚者的贊許和扶助。在這種情況下，往往是天地派仙女下凡與凡夫成親，幫助其擺脫困境”，오광정, 의 책, 105쪽.

20) 오광정은 사례로 《산해경·대황부경》《黃帝問玄女兵法》《黃帝玄女戰法》《廣博物志·玄女法》 등을 들었는데, 모두 황제를 돕는다. 오광정, 같은 책, 105쪽 참조.

21) 대표 인물로 董永과 《搜神記》의 〈白水素女〉〈杜蘭香〉〈天上玉女〉 등을 들었다. 오광정, 같은 책, 105쪽 참조.

22) 《신선전》의 위상은 이미 정설이 되었지만 다음 평가를 다시 참조한다. “《신선전》은 갈홍의 신선설재론의 구체적 예증으로서 《포박자·내편》의 보조문헌적 성격을 띠고 있는 책인 동시에 《열선전》 이후 신선설화집의 또 하나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서울 민음사, 2005), 29~30쪽.

의 영토에 있는 신하 신분이 아니냐?” 이 말에 위숙경은 아무 응답도 아니 하더니 즉시 사라져 버렸다. 무제는 크게 후회하며 한탄하였다. ……… 그러자 위숙경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난 날 태상의 심부름으로, 무제에게 재액의 시기를 일러주어 그 위액에서 구원을 받는 법과 나라의 복을 연장시키는 일을 경계하도록 하고자 찾아 갔었다. 그런데 무제는 뻔뻔하게 굴며 자신의 존귀를 내세우며 도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일러줄만하지 못하다고 여겨 그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다.”<sup>23)</sup>

위숙경은 ‘무제에게 재액의 시기를 일러주어 그 위액에서 구원을 받는 법과 나라의 복을 연장시키는 일을 경계하도록 하고자 찾아갔다’. 이는 정치 형 하 범제세 모티프에 해당한다. 위숙경은 선계에 있던 신선이 아니라 운모로 제조한 단약을 복용하여 성선하고 지선으로 화산에 거주하고 있지만<sup>24)</sup>, ‘태상의 심부름으로’ 한 무제에게 접근한 만큼 下凡濟世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비록 위숙경이 태상노군의 심부름으로 무제에게 와서 제세에 기여하려 하였지만, 그 결정은 위숙경 자신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제는 뻔뻔하게 굴며 자신의 존귀를 내세우며, 도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일러 줄만하지 못하다고 여겨 그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다.”에서 보듯 실패의 이유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下凡濟世 모티프에서도 역시 성취와 실패 여부를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신선전》의 謫世度脫과 下凡濟世 모티프의 작품은 그 명칭에서와는 달리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

23) “衛叔卿者，中山人也，服云母得仙。漢元鳳二年八月壬辰，武帝閑居殿上，忽有一人，乘浮雲白鹿集於殿前。帝驚問之爲誰，曰：〈我中山衛叔卿也。〉帝曰：〈中山非我臣呼？〉叔卿不應，卽失所在。帝甚悔恨，……叔卿曰：〈吾前爲太上所遣，欲戒帝以災厄之期，及救危厄之法，國祚可延。而帝強梁自貴，不識道眞，反欲臣我，不足告語，是以棄去〉”，갈홍, 앞의 책, 〈위숙경〉, 72~73/74~75쪽.

24) 관련된 구체 사정은 다음과 같다. 위숙경의 아들 위도세는 아버지의 전력을 양백지에 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저의 부친은 젊어서 선도를 좋아하였습니다. 약을 복용하여 몸을 다스리기를 80여 년이 되어 몸이 젊고 장성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를 맡겨두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화산으로 들어간다’ 그로부터 이미 40여 년이 흘렀는데 집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臣父少好仙道，服藥治身八十餘年。體轉少壯。一旦委臣去，言：《當入華山耳。》今四十餘年，未嘗還也。’)”，갈홍, 같은 책, 72/74쪽.

지 못한 실패 형들이다.

## 2) 成仙考驗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한 대로 成仙考驗 유형은 위진 시기 도교의 도를 전수하는 방식, 즉 師徒秘授(傳)制에서 기인하여 작중에 이입된 현실 반영의 한 양상이라고 하겠다. 《포박자》〈내편〉에서도 갈홍은 “진정한 비결은 구전되거나 문서로 전수한다. 스승을 오래 동안 따르며 늘 근면 조심하며 시험을 거친 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sup>25)</sup>고 하였다. 이 시기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은밀하게 경을 전수하기 때문에 전수하기 전에 반드시 제자를 엄격하게 고험하고, 제자는 도경을 받을 때 종교의식을 이행하고 예물을 바쳐 증표로 삼았는데, 호부침은 이 제도가 한나라 유생들이 경을 전수하는 전통을 답습하였다고 하였다.<sup>26)</sup> 成仙考驗 모티프에 대하여 오광정은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도교에서는 成仙得道하려면 반드시 心性을 수련해야 한다고 여겼다. 노자는 “오색은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귀를 멀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며 모든 외물의 유혹을 벗어나야 현묘한 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다. 장자는 “강건한 지체를 망가뜨리고 영민한 청각과 똑똑한 시력을 물리치며 육체에서 벗어나 지혜를 포기해야” 도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도교의 이런 修心煉性 사상이 선화 창작에 반영되어서는 곧 고험성선이라는 고사 유형을 출현시켰다. 도교 종사나 도교 신선은 갖가지 세속 유혹을 설치하여 구도자의 성심을 시험하고 도심이 견고한 자라야 제자로 받아

25) “其至真之訣，或但口傳，或不過尋尺之素，在領帶之中，非隨師經久，累勤歷試者，不能得也”，王明，《抱朴子內篇校釋》(北京·中華書局，2007)，〈勤求〉，256쪽.

26) “진시황이 焚書한 이후 민간에는 경서가 없었다. 漢儒가 경을 배우려면 천리를 마다 않고 스승을 찾아가 배알해야 스승의 구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점점 師徒授經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신선도교는 漢儒의 師徒授經의 전통을 답습하고 종교의식을 더 하여 더욱 신비롭게 하였다. (蓋因秦始皇焚書之後，民間經書無存，漢儒學經，只好千里拜師，由得過真傳的經師口授，逐漸形成了這種師徒授經的傳統。神仙道教沿襲了漢儒師徒授經的傳統，加上一些宗教儀式，搞得更爲神秘.)” 胡孚琛，《魏晉神仙道教》(北京·人民出版社，1991)，69쪽 참조.

들여 신선이 되게 하였다.<sup>27)</sup>

오광정은 이 모티프와 《신선전》을 다음과 같이 관련시켰다.

이 과도기의 신선사상은 방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28)</sup>……방술은 明師가 장악하고 있으므로 성선득도하려면 이런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했다. 방술의 신비 보귀와 득도 성선이 가져올 거대한 이익 때문에 명사는 제자를 엄격하게 선택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신선전》의 성선고험의 내용은 제자가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낮추어 스승을 모시며, 명사가 설치한 갖가지 시험을 통과하느냐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두 가지 방면에서 구현되었다. 하나는 사부에 대한 절대 신임이다. 〈魏伯陽〉… 〈李阿〉… 〈劉安〉… 두 번째는 지성으로 사부 시봉이다. 〈陳安世〉…〈陰長生〉… 〈李八百〉… 〈薊子訓〉〈張道陵〉의 선인은 심지어 죽음으로 제자의 사부에 대한 지극한 성심을 시험하고 있다.<sup>29)</sup>

즉 〈魏伯陽〉을 위시하여 8편을 예거하며, 이들을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과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 두 계열로 구분하고, 전자로는 〈魏伯陽〉 〈李阿〉 〈劉安〉 3편을, 후자로는 〈陳安世〉 〈陰長生〉 〈李八百〉 〈薊子訓〉 〈張道陵〉 5편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계열 구분의 의도는, 성선고험 모

27) “道教認爲成仙得道要在修心煉性。老子認爲“五色令人目盲，五音令人耳聾，五味令人口爽”，只有摒去一切外物誘惑才能够體認到玄妙之道；庄子也主張“墮肢体，黜聰明，離形去知”，…… 道教這種修心煉性思想反映到仙話創作中就出現了考驗成仙這一故事類型：道教宗師或道教神仙常常設置種種世俗誘惑以考驗求道者的誠心，道心堅固者才會吸收爲弟子度脫爲神仙”， 오광정, 같은 책, 169~170쪽 인용.

28) ‘과도기’란 小南一郎에 의하면 ‘자력 동기의 신선사상’에서 ‘타력 동기의 신선사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신선전》은 이러한 시기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小南一郎 著/孫昌武 譯, 《中國的神話傳說與古小說》(北京·中華書局, 1993), 198쪽 참조.

29) “這一過度時期的神仙思想特別強調方術的重要性。…方術掌握在“明師”手中，要成仙得道就得拜這些人爲師。方術的神秘寶貴和得道成仙帶來的巨大利益使得“明師”對弟子的選擇極爲嚴格：…在這種背景之下，《神仙傳》中的成仙考驗內容集中體現在弟子如何折節拜師奉師通過“明師”設置的種種考驗。具體體現爲兩個方面，其一，對師父的絕對信任。《魏伯陽》…《李阿》…《劉安》…。其二，對師父的至誠侍奉。《陳安世》…《陰長生》…《李八百》…。《薊子訓》、《張道陵》中的仙人甚至用死來試探弟子對師父的至誠之心”， 오광정, 앞의 책, 171~173쪽.

티프 작품들의 서사가, 크게, 스승이 제자의 자질과 신념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 난관을 설정하고 제자가 그 난관을 감내하면서 그 극복에 노력하는 이야기와, 제자가 도에 뜻을 두고 스승을 신뢰하며 성심으로 스승을 수행하는 이야기로 양분되기 때문이며, 서사 진행에서도 대조되는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스승이 주도하는 성선고험이며, 후자는 제자 위주의 성선고험이라고 두 계열의 서로 다른 특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전자는 스승과 제자가 처음에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에서 고험을 매개로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거나 파탄에 이르는 이야기이며, 후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제자가 이미 세속의 부조리를 각성하고 진실한 품성을 갖추어 처음부터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며 고험에 해당하는 제자의 성심어린 공부와 시봉으로 스승이 드디어 제자를 인정하고 도를 전수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제자가 도에 뜻을 두었으나 뜻에 상응하는 진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후자는 도에 뜻을 두었으며 이미 일정한 진정성을 갖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시된 《신선전》의 작품들 중 〈魏伯陽〉과 〈陰長生〉 〈張道陵〉 3편은 성선고험 모티프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기에 검토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5편은 문제점들이 있어 재검토와 보완의 필요가 있다.

### (1) 문제 작품들

#### ① 〈李阿〉<sup>30)</sup>

다시 말해 오광정은 이 작품을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의 성

30) 〈장도릉〉과 〈이아〉는 《신선전》 원본에 수록되지 않았을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선전》 10권은 아마도 원본의 모습은 아니며 일찍 산일된 자료들이 후세에 재편성되어 오늘의 《신선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신선전》의 설화 중에는 후대에 편입된 것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예컨대 郭璞(276~324)과 같은 갈홍의 동시대인과 《포박자·내편》에서 명백히 혐오감을 표시했던 〈장도릉〉, 〈이아〉등에 관한 설화는 결코 원본에 있을 수 없는 것들로 판단되고 있다.”(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2005, 29~30쪽 참조) 지지할 수 있는 견해이지만 원전 확정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오광정이 다루었기 때문에 검증에서 제외할 수 없었다.

선고협 모티프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아>에서는 정작 선고협 사례가 부각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아의 특이한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 부각의 동기도 제자 고강이 이아를 비상하게 여겨 스승으로 모셨지만 이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자 이아가 자신의 특이한 능력을 보여주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아는 축 땅 사람이다. 축 사람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그를 보았는데 여전히 늙지 않고 그대로였다 한다. …… 마침 고강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아가 비상한 사람일 것이라 여겨 늘 가까이 모셨다. 그리하여 시험 삼아 그가 자고 나오는 곳을 따라가 보았더니 바로 청성산 속이었다. 고강은 뒤에 다시 그를 따라가 보고 싶어 하였지만 자신은 그 길을 몰라 호랑이나 이리의 환난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쓰던 긴 칼을 가지고 나섰다. 그러자 이아가 이를 보고 노하여 “그대가 나를 따라 나서면서 어찌 호랑이를 무서워하는가?”라고 하며 고강의 칼을 빼앗아 돌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말았다. 고강은 속으로 그 칼이 아깝다고 여겼다. … 이아가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부러진 칼이 아까운가?” … 이아는 곧 그 칼을 가져다 오른손 왼손으로 땅을 쳤다. 그랬더니 칼이 다시 달라붙어 원래대로 되는 것이었다. … 다시 이아를 따라 성도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오는 길 중간에서 내달려오는 수레를 만났는데 이아의 발이 수레바퀴 밑에 깔려 그만 그 발과 정강이가 모두 부러지면서 이아는 그 자리에서 죽사하고 말았다. 고강이 이를 지켜보았더니 잠시 후 이아가 다시 일어나 손으로 부러진 것을 누르고 맞추자 다리가 그대로 온전해지는 것이었다. 당시 고강은 나이가 18세였는데 이아의 안색은 50쯤 되어 보이는 것이었다. 고강이 80여 살에 이르렀을 때도 이아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였다.<sup>31)</sup>

이아는 칼을 부러뜨리고 부러트린 칼을 원상복구하며 고의로 수레에 깔려 발과 정강이를 부러트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이적을 시험하고 있다.

31) “李阿者，蜀人也。蜀人傳世見之，不老如故。……有古強者，疑阿是異人，常親事之，試隨阿還所宿，乃在青城山中。強后復欲隨阿去，然身未知道，恐有虎狼，故持其父長刀以自衛。阿見之怒曰：汝隨我行，何畏虎耶？取強刀擊石拆敗。強倚憂刀敗，…阿問曰：汝愁刀敗耶？…阿即取刀，以左右手擊地，刀復如故，以還強。強逐阿還成都，未至道次，逢奔車，阿以脚置車下，轆其脚脛皆折，阿即死。強守視之，須臾阿起，以手抑按，脚復如故。強年十八，見阿色如五十許人，至強年八十餘，而阿猶如故”。갈홍, 앞의 책, 103~104/104~105쪽.

이러한 서사는 스승의 제자 고택이라기보다는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하려는 신선 입증에 해당하며, 그 동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성선고험 모티프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성이 있다. 오광정은 또 “〈李阿〉 중의 고강은 이아를 사사하면서도 사부의 위력을 의심하다가 결과적으로 성선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sup>32)</sup>고 하였지만, 이아는 고강이 수행하여야 할 고택을 시도하지 않았기에, 이 작품을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李阿〉에서 신선이 세속 사람에게 이적을 시현하는 국면은 《列仙傳》을 이어 《신선전》에서 확대되고 후세 작품들에 지속되고 있는 영물의 세 역할 중 ‘신선으로서의 능력 발휘’를 대체하는 양상으로 간주해볼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하지만 이 작품의 서사가 사제관계를 전제하고 양자의 신뢰를 주제로 하며 사건들도 그 해결에 기여하려는 시도이기에, 결국 성선고험 모티프에 포괄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李阿〉와 같은 작품을 성선고험 모티프로 제대로 포괄하기 위하여 성선고험의 개념을 확대하고 계열을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즉, 〈李阿〉와 같은 작품을 배려하여 성선고험의 개념을 ‘명사가 설치한 갖가지 시험을 통과하느냐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로만 규정하지 말고, ‘명사가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이적을 구현하기도 한다’를 추가하고, ‘사부가 자신을 신뢰하도록 제자에게 이적을 시현하는 계열’을 추가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필요는 다음 〈유안〉 검토에서 반복된다.

## ② 〈劉安〉<sup>34)</sup>

오광정은 이 작품을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이라고 하였다.

32) “《李阿》篇中的古强者師事李阿，也由于怀疑師父的威力，結果錯失成仙的良机”，오광정, 앞의 책, 173쪽.

33) 줄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중어중문학》, 제37호, 한국중어중문학회, 2005. 12), 201-203쪽 참조.

34) 오광정은 판본을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도 《태평광기》의 〈유안〉을 텍스트로 하고 있는 듯하다. 《사고전서》본의 〈회남왕〉과 문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과 서사과정은 동일하다. 《사고전서》본이 《태평광기》본보다 원전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전서》본의 의의에 대해서는, 갈홍 찬/임동석 역주, 같은 책, 〈일러두기〉 8쪽 참조.

i) 회남왕 유안은 신선의 도를 좋아하여 해내의 방사로 그를 따르던 자들이 많았다. 어느 날 아침 팔공이 찾아왔다. 그들은 얼굴이 모두 노쇠한 모습으로 마르고 구부정한 노인들이었다. 문지기가 그들 모습만 보고 “왕께서 좋아하시는 바는 神仙度世와 長生久視의 도입니다.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이들만 왕께서 영접하십니다. 지금 공들은 이렇게 늙으셨으니 왕께서 만나 뵙기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거절하기를 네 번, 그런데도 이들은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그치지 않았다. ii) 문지기가 처음과 똑같은 이유를 대자 팔공이 이렇게 말하였다. “왕께서 우리를 늙고 노쇠했다는 이유로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젊은이로 바뀌면 되리라. 그 정도가 어찌 어려운 일이겠는가?”이에 옷을 떨치고 용모를 바로잡더니 그 자리에서 어린 동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문지기가 놀라 이들을 안내하여 들여보냈다. 왕은 신발을 거꾸로 하고 이들을 맞아 예를 마련하며 자신을 제자로 여겨 줄 것을 청하였다. “높으신 신선께서 먼 길을 내려 오셨는데 저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팔공의 성씨를 묻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이름은 文五常, 武七德, 枝百英, 壽千齡, 葉萬春, 鳴九臯, 修三田, 峯一峰입니다. 각기 숨을 내불어 비바람을 만드는 일, 우레와 번개를 일으키는 일, 하늘을 기울게 하고 땅을 놀라게 하는 일, 해를 되돌리고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는 일, 귀신을 부리는 일, 마귀에게 매질하는 일, 물불에 드나들 수 있는 능력, 산천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등 변화의 일에 능하여 해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iii) 당시 회남왕의 신하로 오피라는 자가 있어 일찍이 과실을 저질러 왕에게 주살을 당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 결국 궁궐로 가서 회남왕이 틀림없이 변고를 일으킬 것이라 증언하였다. 무제가 회남왕을 의심하여 태종정에게 조서를 내려 부절을 가지고 회남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종정이 미처 이르기 직전 팔공이 먼저 왕에게 말하였다. “오피라는 자가 왕을 무제에게 무고하였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입니다. 왕께서는 떠나십시오. 이 역시 하늘이 왕을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하루가 다시 하루처럼 이 인간 세상에서 보낼 텐데 그러다가 언제 이 속세를 버리겠습니까!”그리고 팔공은 단정을 꺼내어 약을 달인 다음 이를 왕이 복용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왕의 골육 3백여 명이 같은 날 함께 승천하고 말았다. 게다가 약그릇을 훔아 먹은 닭과 개들도 역시 함께 날아가 버렸다.<sup>35)</sup>

35) “淮南王安，好神仙之道，海內方士從其游者多矣。一旦，有八公詣之，容狀衰老，枯槁僂僂。闔者謂之曰：王之所好，神仙度世長生久視之道，必須有異於人，王乃禮接。今公衰老如此，

〈劉安〉은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의 성선고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과 ii)에서 보듯 이 작품에서도 신선 팔공은 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문지기가 선도에 뜻을 둔 상태가 아니기에 i)의 이적 시현은 작은 에피소드이며 ii)에서 선도에 뜻을 두었으며 문지기의 보고를 받고 제자 되기를 자청한 회남왕도 팔공의 이적을 기대하자, 팔공은 ‘숨을 내불어 비바람을 만드는 일’ 등 여러 비상한 일이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들은 iii)에서 보듯, 회남왕이 드디어 팔공의 변고 장담을 믿고, 또 부질없는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단약을 순순히 복용하는 데에 수렴되며, 이 결말로 하여 이 작품을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전체에서 단약 복용 이외에 회남왕이 신뢰를 표명하는 일화나 장면이 없고, 결미의 성선도 팔공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작품이 성선고험 모티프의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이기는 하지만, 이 계열의 한 전형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sup>36)</sup> 한편 이 작품의 전반은 〈이아〉의 서사구조와 같아 주목된다. i)과 ii)는 ‘명사가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이적을 시현하기도 한다’에 해당하며, 〈이아〉에서 검토한 대로 ‘사부가 자신을 신뢰하도록 제자에게 이적을 시현하는 계열’에도 수렴되는 작품이다.

한편, 오히려 이 작품을 적세도탈의 사례로 예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의 팔공의 진언에 나타난, 당대 도교 인물들이 회남왕 사건이 무고에 기인하

非王所宜見也。拒之數四。公求見不已，閻者對如初，八公曰：王以我衰老不欲相見，却致年少，又何難哉？於是振衣整容，立成童幼之狀。閻者驚而引進，王倒屣而迎之，設禮稱弟子，曰：高仙遠降，何以教寡人？問其姓氏，答曰：我等之名，所謂文五常·武七德·枝百英·壽千齡·叶万椿·鳴九阜·修三田·峇一峰也，各能吹噓風雨，震動雷電，傾天駭地，回日駐流，役使鬼神，鞭撻魔魅，出入水火，移易山川，變化之事，无所不能也。時王之小臣伍被，曾有過，恐王誅之，心不自安，詣闕告變，証安必反。武帝疑之，詔大宗正持節淮南，以案其事。宗正未至，八公謂王曰：伍被人臣，而誣其主，天必誅之，王可去矣。此亦天遣王耳！君无此事，日夏一日，人間豈可捨哉！乃取鼎煮藥，使王服之，骨肉近三百餘人，同日昇天。鷄犬舂藥器者，亦同飛去”。갈홍, 같은 책, 〈회남왕〉, 206~207 / 208쪽.

36) 오광정의 관련 언급을 다시 조명한다. “도교 종사나 도교 신선은 갖가지 세속 유희를 설치하여 구도자의 성심을 시험하고 도심이 견고한 자라야 제자로 받아들여 신선이 되게 하였다.”, 오광정, 앞의 책, 169~170쪽.

였다는 것과 회남왕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실은 성선이라는 해석을 참작하고, 팔공의 도래와 회남왕을 도탈시키는 국면을 종합하면 下凡歷劫의 謫世度脫 모티프의 정치 형이 병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위숙경〉과 더불어 정치 형의 실패 사례로 주목된다. 둘 다 도교와 세속의 지향 차이와 갈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이상 검토를 정리하면〈劉安〉은 액자구조의 작품으로 적세도탈이 외곽구조이며 성선고험은 내부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陳安世〉

오광정은 이 작품을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陳安世〉의 진안세는 두 서생으로 위장한 선인이 법술이 없다고 의심하였고 그의 아내도 가난한 서생이 먹을 것이나 찾는다고 혐오하며 시봉을 두루 하지 않다가 성선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의 집의 동자는 오히려 성실함으로 인해 선인의 지시로 득도성선하게 되고, 주인인 진안세는 오히려 가복에게 제자의 예를 갖추고 조석으로 섬기며 그를 위하여 물 뿌리고 비질하는 일을 하였다.<sup>37)</sup>

이 부연에서 먼저 문제되는 것은 ‘주인인 진안세’와 ‘그의 집의 가복’이라 하였는데, 이는 두 인물을 거꾸로 잘못 호명한 것이다. 고험에서 실패하였다고 소개한 ‘주인인 진안세’는 작중에서 관속평이고, 고험을 통과였다는 ‘그의 집의 가복’은 진안세이다. 사소한 오류지만 검토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리고 작중 진안세 관련 서사는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 아니라,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이다. 이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작중 사정은 다음과 같다.<sup>38)</sup>

37) “《陳安世》中的陳安世懷疑委托爲二書生的仙人沒有法術，其妻又厭惡窮書生趁食，結果侍奉不周，失去了成仙的機會；他家童子却由於誠實而得到仙人指點得道成仙，陳安世這個主人反而對家仆“執弟子之禮，朝夕拜事之，爲之洒掃”，오광정, 앞의 책, 173쪽.

i)진안세는 경조 사람으로 관숙평의 식객이었다. 품성이 인자하여 새나 짐승을 보아도 길에서 내려 피하여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였다. 게다가 살아있는 벌레도 밟지 아니하며 어떤 생물도 죽여 본 적이 없이 나이 30이 되었다.

ii)관숙평은 도를 좋아하여 신선을 만나기를 생각하였는데 홀연히 두 선인이 서생의 모습으로 변하여 숙평을 따라 사귀면서 그를 시험해보고자 하였다. 숙평은 당연히 그 서생이 선인인 줄 눈치 채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숙평은 게을러져 이들을 잘 대해주지 않기 시작하였다. ……(선인이) 안세에게 물었다. “그러면 도를 좋아하여 신선이 되고 싶으냐?” 안세가 대답하였다. “도를 좋아하지만 이를 알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말하였다. “너는 보아하니 도를 좋아하는구나. 내일 일찍 길 북쪽 큰 나무 아래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안세가 일찍 그 약속한 곳으로 갔으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도록 두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일어서서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서생들이 나를 속인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의 꺾가에서 그를 부르며 말하였다. “안세, 너는 어찌 이리 늦었느냐?” 안세가 말하였다.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너의 꺾가에 단정히 앉아 있다.” 이리하여 세 번 다시 만날 약속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안세가 일찍 나타나자 그들은 가히 가르칠만하다고 여겨 그에게 약 두 환을 주면서 이렇게 경계하였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든 음식을 먹지 말고 따로 한 곳을 마련하여 머물도록 하여라.” 안세는 그들이 일러준 대로 하였고 두 사람은 항상 그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39)

iii)숙평은 … 성선할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고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무릇 도는 높고 덕은 귀한 것이니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

38) 오광정이 인용한 <진안세>가 어느 판본에서 인용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사고전서의 <신선전>과 <태평광기> 권5에 수록된 내용은 인용을 포함, 거의 일치한다.

39) “陳安世者，京兆人也，爲灌叔平客，稟性慈仁，行見鳥獸，下道避之，不欲驚動。不踐生虫，未嘗殺物，年三十。而叔平好道思神，忽有二仙人託爲書生，從叔平行遊以觀試之。叔平不覺其是仙人也，久而轉懈怠。……乃問安世曰…又曰：汝好道希仙耶？答曰：好道，然無緣知耳。二人曰：汝審好道，明日早會道北大樹下。安世早往期處，到日西而不見二人，乃起將去，曰：書生定欺我耳。二人已在其耳邊呼之曰：安世，汝來何晚耶？答曰：早旦來，但不見君耳。二人曰：我端坐在汝邊耳。頻三期之，而安世輒早至，知其可教，乃以藥兩丸与之，誡曰：汝歸家，勿妄飲食，別止一處。安世依誡，二人常往其處” 갈홍, 앞의 책, <진안세>, 92~95/95~96쪽.

하다.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스승이 없다면 능히 나를 장생하도록 할 수 없다. 나보다 먼저 도를 들은 자라면 곧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자의 예를 갖추어 조석으로 절하며 안세를 모셔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일을 도맡았다. 안세는 도가 이루어지자 대낮에 승천하였다. 그는 떠날 때 임하여 드디어 요도를 숙평에게 전수하여 주었고, 숙평도 뒤에 신선이 되었다.<sup>40)</sup>

관숙평 관련 서사야말로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성선고험 모티프의 예시로〈진안세〉를 예거한다면, 진안세 관련 서사보다는 관숙평 관련 서사를 주목하고 부각하여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iii)을 제외하였는데, iii)은 이 작품의 서사를 조명하는 분석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관숙평은 비중이 진안세와 같거나 높은 인물이며, 애초에 두 서생(신선)이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고험 아닌 고험의 첫 대상자였고, 진안세의 성취 이후에 전후 사실을 깨달았으나 좌절하지 않고, 진안세를 스승으로 모시고 지성으로 시봉하며 결국 성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인공은 진안세라기보다는 관숙평일 수 있기에 성선고험 유형의 예시로 이 작품을 예거한다면 진안세보다는 관숙평 관련 서사를 주목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 작품은 성선고험 유형의 걸작이라고 평가할만하다. 관숙평의 실패와 진안세의 성취에서 끝나지 않고, 관숙평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취하는 iii)의 서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숙평의 탄식과 용기가 주목되며, 그저 실패로 끝나는 성선고험 사례와 캐릭터에서나 주제에서나 대조된다. 또 스승은 신분의 귀천과 나이의 다과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를 누가 먼저 들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각성은 당시의 신분제도와 장유관념을 초월하는 의지로 서, 소설에서만 가능한 유익한 일탈로 주목된다. 이런 사정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서사구조로 보아 진안세의 성취는 전개 부분이며 관숙평의 성취야말로 이 작품의 절정이자 결말이기에, 〈陳安世〉에서는 관숙평이

40) “自知失賢，乃歎曰：夫道尊德貴，不在年齒。父母生我，然非師則莫能使我長生也，先聞道者則爲師矣。乃自執弟子之禮，朝夕拜事安世，爲之洒掃。安世道成，白日昇天。臨去，遂以要道傳叔平，叔平后亦得仙也”，갈홍, 같은 책, 〈진안세〉, 95 / 96쪽.

야기가 거듭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과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 양쪽에 나열되는 작품이다. 〈陳安世〉처럼 두 계열에 나열되어야 할 후대 작품을 배려하여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며,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ii)에서 두 서생(신선)이 관속평을 고향하는 국면에서 관속평이 두 서생이 신선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선 일방의 고향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며,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 그리고 '사부가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이적을 시현하는 계열'과도 다른 조건이다. 따라서 관속평과 같은 사례를 감안하여, '사부인지 모르면서 고향 받는 계열'을 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는 다음(李八百)에서 반복된다.

#### ④ 〈李八百〉

“이팔백은 ... 이미 팔백 세가 되었을 것이라 여겨 호를 이렇게 부른 것이다. ... 그는 한중의 당공방이라는 자가 도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공방에게 대도를 가르쳐 주고자 먼저 찾아가서 시험 삼아 탐문해 보고는 그의 머슴으로 들어갔다. ... 뒤에 팔백은 거짓으로 병이 난채하여 곧 죽음에 이를 듯이 하였다. ... 공방이 곧 양의를 불러 약을 조제하였는데 무려 수십만의 재물이 들었으나 조금도 재물의 손해라 여기지 아니하며... 팔백은 온몸에 악창이 나도록 하여 몸 둘레 어디에도 짙은 고름과 피가 흘렀으며 악취가 진동하여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마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에 이팔백은 이렇게 말했다. “저의 이 악창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직접 활아 주어야 합니다.” ...이팔백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비녀가 활아서는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가 직접 활아 주신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방은 즉시 스스로 나서서 활아 주었다. 그러자 이팔백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활아 주는 것만으로는 제 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의 부인이 활아 준다면 차도가 있을 것입니

다.” 공방은 이에 다시 자신의 처를 시켜 이를 훔쳐 주도록 하였다. 이에 팔백은 이렇게 말하였다. “창병이 차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술 30곡으로 목욕을 하고나야 모두 낫게 될 것입니다.”

... 그제야 이팔백은 이렇게 일러 주었다. “나는 선인이라고. 그대의 지극한 마음에 이렇게 찾아와 시험한 것입니다. 그대는 가히 가르칠 만하오. 지금 당장 도세의 비결을 전수해드리리다.”<sup>41)</sup>

〈李八百〉은 우선 보기에 성선고험 모티프의 전형에 해당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팔백의 무리하기 짝이 없는 고험과 당공방의 비범한 부응은 자비와 동정, 재물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태도와 더불어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며 그 결말도 긍정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이팔백의 시험과 당공방의 행위는 오광정의 구분대로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한 유형’이 아니라,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로 우선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보아야 할지도 의문이다. 결말에 이르기까지 양자는 사제관계가 아니라 머슴과 주인의 관계였다. 이팔백이 선인이긴 하지만 아무런 현시나 암시가 없었고 당공방 또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팔백의 정체를 몰랐다. 다시 말해 당공방은 이팔백을 머슴으로만 안 상태에서 자신의 덕성으로 이팔백을 돌본 것이지 선도에 뜻을 두고 이팔백을 사부로 시봉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팔백 일방의 검증에 불과하기에 이 작품을 성선고험의 한 전형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 작품을 성선고험 유형의 예시로 삼거나 제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진안제〉에서 살펴본 대로 ‘사부인지 모르면서 고험 받는 계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성선고험 모티프에 트릭과 복선이 개입된 이러한 작품들을 보다 명분 있게 예시할 수 있을 것이며 후대 관련 작품 고찰에서도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1) “李八百者 … 已年八百歲，因以号之…知漢中唐公叻求道而不遇明師，欲教以至道，乃先往試之，爲作僱客，…后八百乃僞作病，危困欲死，公叻爲迎醫合藥，費數十萬，不以爲損，憂念之意形於顏色。八百又轉作惡瘡，周身匝体，膿血臭惡，不可近視，人皆不忍近之。…八百曰：吾瘡可愈，然須得人舐之。…八百曰：婢舐之不能使愈，若得君舐之，乃當愈耳。公叻卽自爲舐之。八百又言：君舐之不能使吾愈，若得君婦爲舐之，當差也。公叻乃使妻舐之。八百曰：瘡乃欲差，然須得三十斛美酒以浴之，乃都愈耳”，갈홍, 같은 책, 〈이팔백〉, 97~100 / 100~101쪽.

## ⑤ 〈薊子訓〉

그는 만년에 세속을 다스리고 여러 관리를 지낸다 해도 이것이 나와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에 이소군을 따라 병을 치료하고 의술을 짓는 법을 배웠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이소군이 장생불사의 도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드디어 제자의 예를 갖추어 이소군을 모시며 스승으로 삼았다. 이소군도 역시 계자훈이 마음을 오로지 쏘아 결국 성취할 것임을 알고 점차 그에게 도가의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 胎息法과 胎食法, 주년법, 지백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이를 실행하기를 2백 년이 되자 그의 안색은 늙지 않게 되었다. 그는 향리에 살면서 사람들과 믿음과 양보로써 일에 따랐고 성품이 청정을 좋아하였으며, 항상 한가하게《주역》을 읽으며 때때로 자질구레한 문장이나 주석을 달았는데 모두가 뜻이 있었다. 이소군은 만년에 다시 계자훈에게 무상자의 대환화 술법을 전수해주었다. 계자훈이 이를 일러준 방법에 따라 실행하였더니 모두가 효험이 있었다.<sup>42)</sup>

〈薊子訓〉에는 별다른 고희 과정이 없다. 하지만 계자훈의 세속을 초탈하려는 각성과 장생을 지향하는 뜻이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기에 고희과정의 생략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사가 전지시점의 분석에다 그 내용도 단조로워 구조가 단순하다. 역시 성선고험 모티프의 한 전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오광정은 이 작품을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소군이 장생불사의 도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드디어 제자의 예를 갖추어 이소군을 모시며 스승으로 삼았다. 이소군도 역시 계자훈이 마음을 오로지 쏘아 결국 성취할 것임을 알고 점차 그에게 도가의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다.’라는 지문을 감안한 규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광정은 “〈薊子訓〉(張道陵)의 선인은 심지어 죽음으로 제자의 사부에 대한 지극한 성심을 시탐

42) “晚悟治世俗綜理官无益於年命也，乃從少君學治病作醫法。漸久，見少君有不死之道，遂以弟子之禮，事少君而師焉。少君亦以子訓用心專，知可成就，漸漸告之以道家事，因教令胎息·胎食·住年·止白之法。行之二百余年，顏色不老。在鄉里與人信讓從事，性好清淨，常閑居讀《易》，時作小小文疏，皆有意義。少君晚又授子訓无常子大幻化之術，按事施行，皆効”，갈홍, 같은 책, 〈계자훈〉, 277/282쪽.

하고 있다.”<sup>43)</sup> 라고 하였다. 하지만〈薊子訓〉어디에서도 이소군이 계자훈을 고향하는 국면이 없고, 이소군이 그 일환으로 고의로 죽었다는 장면도 없다. 또〈張道陵〉에도 그러한 분석에 해당하는 국면이 없다. 단지 장도릉이 학명산에서 은거하다가 노군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연단 제조법을 익히게 되었으며, 노군은 청화옥녀를 보내어 토납청화의 비법을 가르쳐 준다는 데 그친다.<sup>44)</sup>

## (2) 누락된 작품들

《신선전》의 작품들 중에서 〈馬鳴生〉과 〈東郭延〉은 성선고험 모티프의 사례로 추가될 수 있다.(〈壺公〉은 더욱 그러하지만 앞에서 검토하였기에 생략한다.)

### ① 〈馬鳴生〉

마명생은 제나라 임치사람으로... 젊었을 때 현의 관리로서 도적을 잡으러 쫓아갔다가 도리어 도적에게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때 그는 잠시 죽었으나 도사가 신약으로 그를 구해주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에 그는 관직을 버리고 그 스승을 따라 나섰다. 처음에 그는 창병을 고치는 기술 정도 배웠으면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장생의 도술이 있음을 알고 오래도록 스승으로 모셨다. 그는 책 상자를 짊어지고 스승을 따라 ... 천하를 주유하고 다녔다. 이렇게 고생과 노력 끝에《태청신단경》3권을 받아 돌아와 산에 들어가 약을 조제하여 복용하였다. 그는 승천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단지 약 반제만을 복용하여 지선이 되었다.....<sup>45)</sup>

43) “《薊子訓》、《張道陵》中的仙人甚至用死來試探弟子對師父的至誠之心”，오광정, 앞의 책, 173쪽.

44) 《張道陵》은 제세강요 유형에서 다루어진다.

45) “馬鳴生者，齊國臨淄人也，…少爲縣吏，因逐捕而爲賊所傷，當時暫死，得道士神藥救之，遂活。便棄職隨師，初但欲求受治瘡病耳，知其有長生之道，遂久事之。隨師負笈，…周游天下。勤苦備嘗，乃受《太清神丹經》三卷，歸入山合藥，服之。不樂昇天，但服半劑，爲地仙矣”，…… 갈홍, 앞의 책, 〈마명생〉, 166 / 167쪽.

이 작품은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다. 마명생은 스승인 어떤 도사의 고흘을 거치지 않는 스승을 믿고 책 상자를 짊어지고 따라다니며 온갖 수발의 고생을 마다않고 노력한 끝에 비법을 전수 받으며 단약 제조에 성공하며 반제만 복용하며 지선을 성취한다. 지선을 추구하는 동기나 목적은 작중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창병을 고치는 기술 정도 배웠으면 했을 뿐'이라는 동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마명생〉은 성선고험 모티프의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의 한 전형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서사의 구체성에서 〈유안〉과 〈계자훈〉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는 위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② 〈東郭延〉

동곽연은... 젊어서 도를 좋아하여 이소군이 도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찾아가 뵈기를 청하였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건줄을 받들고 청소나 하는 일을 시켜줄 것을 애걸하여 소군의 허락을 얻어내었다. 이소군은 그가 조심스러우며 매우 근신하는 모습을 보고 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겨 떠나보낼 때가 되자 그에게 '五帝六甲左右靈飛'의 술법과 '遊虛招真十二事'의 비법을 전수해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역시 중요한 도이다. 잘 살펴 이대로 행하면 그대도 승천할 수 있게 되리라." ..... 그는 고향에 살면서 4백 살이 되도록 늙지 않았다. 그러던 중 건안 21년 어느 날 몇 십 명의 사람이 호랑이와 표범을 타고 나타나 그를 맞아 갔으며 이웃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친척, 친구들과 고별인사를 하면서 "나는 곧돌대로 간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떠나면서 먼저《神丹方》과《五帝靈飛秘要》를 윤선생에게 주었다.<sup>46)</sup>

이 작품도 성선고험 모티프의 소품이며,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다. 사제지간의 비법 전수가 부각되어 있는데, 제자가 스승을 존중하며 헌신

46) "東郭延, ...少好道, 聞李少君有道, 求與相見, 叩頭乞得執侍巾櫛灑掃之役, 少君許之。見延小心良謹, 可成, 臨去, 密以五帝六甲左右靈飛之術, 游虛招真十二事授延, 告之曰:此亦要道也, 審而行之, 亦昇天矣。.....在鄉里四百歲不老。漢建安二十一年, 一旦, 有數十人乘虎豹之來迎之, 鄰盡見之。乃與親故而辭去, 云:詣崑崙台。臨去先以《神丹方》, 《五帝靈飛秘要》傳尹先生", 갈홍, 같은 책, 〈東郭延〉, 258~259/259쪽.

한 끝에 드디어 비법을 전수받고 있다. 한편 주목해야 할 것은 결말에서 보듯 동곽연이 신선이 되어 선계로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고, 동문 윤 선생에게 비법을 전수하는 장면이다. 자신만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동문을 위한 정리를 구현하고 있어, 다른 성선고험 유형 작품에서 잘 볼 수 없는 국면이다. 사제관 계뿐만 아니라 동문 간 유대의 일화가 등장하는 후대 관련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신선전》의 성선고험 모티프 작품들 예시에서〈마명생〉보다 앞서워야 할 것 같다.

### 3) 濟世降妖

오광정은 濟世降妖 모티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i) 우리들은 도교에서 神仙 凡人 鬼怪 계통을 구성하여 ‘사람들이 인생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한 것’을 발견한다. 이 계통에서 신선은 선을 상징하며 凡人을 구제하고 인도하여 성선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귀괴는 인류의 재난을 상징하며, 凡人은 재난의 접수자이며 선의 접수자이다. 이 삼극 구조의 장력 하에서 도교와 민간에는 끊임없이 濟世降妖 시리즈가 파생되어 나왔다.<sup>47)</sup>

ii) 도교는 고대 무술에서 배태되어 전국, 진, 한 시대의 黃老道와 方仙道로 발전하여 최후에는 外丹派와 內丹派의 양대 종교 계통을 형성하였다. 巫覡과 方士의 활동 중에서 탄생한 濟世降妖型 고사도 그에 따라 상응 변화하였다. 巫覡시대의 濟世降妖型 고사는 凶險을 극복하고 피하며 자연력을 제어 억제하여 생산의 풍년이나 개인과 집단의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方仙道 黃老道 시대의 濟世降妖型 고사는 방사들이 어떻게 선술로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하며 요괴를 제압할 것인가를 표현하였고, 스스로 그 술법을 신성시하는 색채가 매우 농후하다.<sup>48)</sup>

47) “我們發現道教建構了一個神仙、凡人、鬼怪系統來“強化人們應付人生問題的能力”。在這個系統中，神仙象徵着善是關懷拯救凡人接引凡人成仙的，鬼怪則象徵着人類的災難，而凡人則是災難的承受者和善的接受者。在這三極結構的張力下，道教、民間不斷衍生出一系列濟世降妖故事”，오광정, 앞의 책, 193쪽 참조.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濟世降妖의 개념이다. '濟世降妖型 고사는 방사들이 어떻게 선술로 병을 고치고 사람을 구하며, 요괴를 제압할 것인가를 표현하였고'에서 보듯, 濟世降妖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주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濟世'와, 사람을 괴롭히는 요괴를 제압하는 '降妖'이다. 둘 다 세속 인간의 재난 구제이지만, 전자는 인간적 차원이며 후자는 초인간적 차원이다. 濟世降妖 유형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오광정의 해설에서 보듯, 인간이 상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과 재난을 극복하려는 욕망에서 발전하여 선화에 유입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신선전》의 관련 작품을 검토해본 결과, 어떤 작품은 濟世와 降妖, 둘 다 서사구조에 포함되어 있었고 어떤 작품은 濟世만, 어떤 작품은 降妖만 제시되어 있다. 濟世降妖란 표제가 이 셋을 구별하지 못하기에, 이를 '世俗救恤'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 내부에 濟世, 降妖, 濟世降妖, 셋으로 계열화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오광정의 다음 《신선전》 관련 평설에서도 나타난다.

방사들은 巫醫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神仙傳》의 壺公은 병을 걸어 두고 세상을 구제하였다. 높은 의술로 남의 병을 치유해주고 "하루에 돈 수만을 거두면 시정의 빈곤하고 굶주린 자에게 베풀었다." 환자를 치료하고 고난을 구제하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였다. 한대 장도릉은 황노사상을 융합하고 파촉에 원래 있던 무귀신앙을 개조하여 오두미도를 창립하였다. 병을 고쳐주고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그 교리의 중심 내용이었다. ... 이와 동시에 방사들은 또 捉妖法術을 정리하여 그 신이함을 선전하였다. 《신선전》에는 요괴를 잡는 능수로 이름이 난 한 대 방사로는 유병, 비장방, 난과가, 삼국시대 방사로는 갈현 등이 있다.<sup>49)</sup>

48) "道敎孕育于古代的巫術發展于戰國秦漢時代的黃老道和方仙道, 最后形成外丹派、內丹派兩大宗敎系統, 從巫覡和方士的活動中誕生的濟世降妖型故事也隨之發生相應的變化. 巫覡時代的濟世降妖型故事主要是爲了克服或避開凶險, 抵禦或控制自然力, 達到生產的丰收或個人、群體的其他目的; 方仙道黃老道時代的濟世降妖型故事則主要表現方士們如何用仙術治病救人和除怪捉妖, 自神其術的色彩非常濃厚", 오광정, 같은 책, 218쪽.

49) "在《神仙傳》中, 壺公懸壺濟世, 以其高超醫術替人治病, "其錢日收數萬, 便施与市井貧乏

오광정은 濟世降妖의 유형을 치병 위주 救人의 제세와 捉妖의 향요로 나누고 전자로는 《신선전》의 호공과 장도릉을 지적하였고, 후자로는 유빙, 비장방, 난파, 갈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구분으로 예시가 보다 적절해진다고 하겠지만, 제세와 향요 양자가 병렬된 작품도 있고, 이는 표제와 중복되기에 이 셋을 포괄하는 새로운 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역시 작품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작품의 주인공으로 간주되는 등장인물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작품들은 앞 〈호공〉이나 〈진안제〉와는 달리 서사구조와 주인공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무난하다. 이상 작품들 중 오광정이 구분한 대로 〈호공〉 중 호공의 행위(발단 부분의 시약과 치병)는 濟世이고, 〈난파〉는 降妖였기에, 그리고 유빙은 《신선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구분에 이견이 있는 작품은 〈葛玄〉, 〈張道陵〉, 〈費長房〉이다.

### (1) 문제 작품들

#### ① 〈葛玄〉

갈현은... 십여 년이 지나 부모가 모두 세상을 뜨자 홀연히 이렇게 탄식하였다. “천하에 항상 죽지 않는 도가 있었다. 그런데 어찌 이를 배우지 않고 있었던가?” 그러고는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발자취를 남겼고 기이한 사람이라면 모두 찾아다녔으며 영지와 삼주를 복용하면서 나중에는 左慈를 따라가 《구단금액선경》을 전수받았다. 갈현이 부지런히 齋料를 받들어 모시자 노군과 태극진인이 감동하여 천태산으로 내려와 그에게 《현령보》 등 경서 36권을 전수해주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태상노군이 다시 세 진인과 함께 나타났는데 목 뒤에 둥그런 광채가 났으며 팔경옥여라는 수레를 타고 있었는데..... 갈현은 모두 태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부지런히 수련하면서 태만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병을 치료하는 일과 귀신을 불러 이를 탄핵하는 술법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몸을 분해하여 모습을 변화시

餓凍者”, 治病救人, 救苦救難, 双管齊下. 漢代張道陵以黃老思想融合改造巴蜀原有巫鬼信仰創立五斗米道, 治病救人便成爲其教理的中心內容之一. ... 与此同时, 方士們重又拾起了巫師的捉妖術以宣揚其神異. 在《神仙傳》中, 漢代方士劉凭、費長房、樂巴, 三國方士葛玄等人都是聞名一時的捉怪能手”, 오광정, 같은 책, 198쪽 참조.

키는 일에도 능하였다. 오나라 대제가 그를 만나자고 하면서 그에게 영예로운 직책을 주고자 하였지만 갈현은 나가지 않았다. ...50)

‘특히 그는 병을 치료하는 일과 귀신을 불러 이를 탄핵하는 술법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에서 보듯, 降妖뿐만 아니라 濟世도 밀접하게 병렬되어 있다. 즉 이 서사의 모티프는 濟世降妖 계열이다. 降妖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성선고험 모티프의 예시로도 가능하다. 그러한 이적들은 ‘左慈를 따라가 《구단금액선경》을 전수받았다.’, ‘갈현이 부지런히 齋科를 받들어 모시자 노군과 태극진인이 감동하여 천태산으로 내려와 그에게 《현령보》 등 경서 36권을 전수해주었다’에서 보듯 갈현의 ‘부지런히 齋科를 받드는’ 수행에서 말미암는데, 수행의 구체가 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성선고험의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② 〈張道陵〉

〈張道陵〉은 제세만이 아니라 향요도 나타나며, 제세향요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단을 이미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를 먹으면 하늘로 올라가 진인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런 공덕도 남기지 못하게 된다. 모름지기 국가를 위하여 재앙을 제거하고 이익을 누리게 해주어 백성과 서민을 구제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단약을 복용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신선이 될 수 있다. 신하로서 세 가지 경우를 섬겨 놓고 나면 거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sup>51)</sup>

50) “葛玄, … 年十餘, 俱失怙恃, 忽嘆曰: 天下有常不死之道, 何不學焉? 因循跡名山, 參訪異人, 服餌芝朮, 從仙人左慈, 服餌芝朮, 從仙人左慈, 受《九丹金液仙經》. 玄勤奉齋科, 感老君與太極真人, 降於天台山, 授《玄靈寶》等經三十六卷. 久之, 太上又與三真人, 項負圓光, 乘八景玉輿, … 悉遵太上之命, 修煉勤苦不怠, 尤長於治病收効鬼魅之術, 能分形變化. 吳大帝要與相見, 欲加榮位, 玄不枉, 求去不得”, 갈홍, 앞의 책, 〈갈홍〉, 288~291쪽.  
51) “神丹已成, 若服之, 當冲天爲真人. 然未有大功於世, 須爲國家除害興利, 以濟民庶, 然後服丹即輕舉. 臣事三境庶無愧焉”, 갈홍, 같은 책, 〈장도릉〉, 189 / 191쪽

선계로 갈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도릉은 세속에 남으려 한다. '모름지기 국가를 위하여 재앙을 제거하고 이익을 누리게 해주어 백성과 서민을 구제해야 한다.'는 憂國衷情의 피력에서 보듯 제세의 의지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는 《신선전》 수록 다른 작품과 이질적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제세항요 의 작품에서보다 제세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이다.<sup>52)</sup> 그런데 〈張道陵〉에는 제세의 국면뿐만 아니라 다음에서처럼 항요의 서사도 있다.

노군이 청화옥녀를 보내어 그를 찾아 토납청화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를 천 일 동안 수련하여 능히 안으로 오장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밖으로 귀신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三步九迹을 행하여 하늘을 교차하여 북두칠성을 밟고 다니며 북극성이 가리키는 바를 찾아가 정령과 사악한 귀신을 통제하였다. 그리고 六天魔鬼와 싸워 二十四治를 빼앗아 이를 福庭으로 고쳤으며 이름을 化宇라 하였다. 그리고 귀신의 우두머리를 항복시켜 陰官으로 임명하였다. 그보다 먼저 이 축 땅에는 마귀가 수만 종류나 되어 대낮에 시장에 사람들이 들끓듯 하였으며 온갖 역질과 병을 퍼뜨려 사람들이 그들의 해를 입었다. 그러나 육천대마를 찾아 이를 항복시킨 뒤로부터 장도릉은 그 귀신 무리를 내쫓아 이들을 서북 지역의 불모의 땅으로 흩어놓아 버렸다. 그리고 귀신들과 이렇게 맹세하였다. "사람은 낮을 관장하고, 귀신은 밤에 활동하여 음양을 구분하며 각기 그 맡은 바를 달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한 걸 같이 법으로 다스려 반드시 죽

52) 갈홍의 귀족 관방 신선도교의 경향에 대하여 여러 비판이 있고("신선도교의 특징은 초인간적 세계에서 영원히 자유자재로 인간 귀족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환상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유한한 것을 두려워하며 아침 이슬 같은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므로 장생성선을 하여 영원히 향락하기를 망상하였다. (神仙道教的特点就是幻想在超人間的世界里永遠自由自在地過着人間貴族一般的生活。他們害怕生命有限，深感富貴榮華如朝露，轉瞬間煙消云散，所以妄想長生成仙，永遠享受)", 왕명, 《포박자내편교석》(북경·중화서국, 2007), 5쪽. "갈홍의 신선도교에 대한 비판은 주로 그것이 탈사회적이고 현실도피적일 뿐 아니라 상류층 지향의 신선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윤찬원, 〈갈홍 신선사상의 형성과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도교문화연구》,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183쪽). 또 〈장도릉〉이 《신선전》에 수록되기 곤란한 작품이며 후세에 투탁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정재서, 앞의 책, 30쪽 참조.) 하지만 《포박자》 외편에는 갈홍의 제세 의지가 천명된 사례가 많으며, 원본 연구도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오광정이 다루고 있어 본고도 검토하게 되었다.

여 버린다.” 이에 어둠의 귀신 세계는 따로 구역을 달리하였으며 인간과 귀신은 그 길을 달리하였다.<sup>53)</sup>

인용에서 보듯, 〈장도릉〉에는 향요의 면면이 그 어느 작품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특히 “사람은 낮을 관장하고, 귀신은 밤에 활동하여 음양을 구분하며 각기 그 맡은 바를 달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한 걸 같이 법으로 다스려 반드시 죽여 버린다.”는 맹서는 향요 의지의 절정이며 다른 작품의 모든 향요 사례를 압도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제세와 향요 두 모티프가 병렬된 작품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費長房〉<sup>54)</sup>

여남군에 항상 요괴가 출몰하였다. 태수의 예복을 입고 府門에 가서 북을 울리자 고을에서는 그것을 근심하였다. 마침 요괴가 오다가 부군을 배알하러 온 비장방을 만나게 되었다. 요괴는 두려워 도망가지 못하고 앞에서 의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했다. 비장방이 “마당에서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꾸짖자 큰 자라였다. 크기는 수레 바퀴만하고 목은 길어 한 자나 되었다. 비장방은 다시 태수에게 가서 벌을 받게 하고 그에게 찰부를 주고 갈피군에게 칙서를 보냈다. 요괴는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찰부를 가지고 갈피호 옆에 이르더니 목에 감아 죽었다.<sup>55)</sup>

53) “老君尋遣清和玉女，教以吐納清和之法，修行千日，能內見五藏，外集外神。乃行三步九迹，交乾履斗。隨甕所指，以攝精邪，戰六天魔鬼，奪二十四治，改爲福庭，名之化宇，降其帥爲陰官。先時蜀中魔鬼數萬，白晝爲市，擅行疫癘，生民久其害。自六天大魔推伏之后，陵斥其鬼衆，散處西北不毛之地，與之爲誓曰：人主於晝，鬼行於夜，陰陽分別，各有司存，違者正一有法，必加誅戮。於是幽冥異域，人鬼殊途”， 갈홍, 앞의 책, 189~190 / 191~192쪽.

54) 오광정은 《신선전》과 관련시켜 비장방을 거론하였으면서도 정작 그 텍스트를 사서인 《후한서·방술전》의 〈비장방〉을 참조하였는데, 의문이다. 본고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사고전서 《신선전》의 〈호공〉에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비장방 이야기가 있고 제세와 향요 이야기가 병렬되어 있다. 참고로 《태평광기》 권12에 수록된 〈호공〉에도 비장방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사고전서》 《신선전》의 〈호공〉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역시 병렬되어 있다. 그런데 《태평광기》 권293에는 별도로 〈비장방〉이 수록되어 있는데, 분량이 한 단락에도 못 치지만 역시 병렬되어 있다.

이 일화는 향요모티프의 형상화이며, 이 일화만이라면 <비장방>의 서사는 향요 형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전서》《신선전》의 <비장방>에는 제세와 향요 두 모티프가 다음처럼 병렬되어 있다.

비장방은 부적으로 귀신을 부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낮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매번 사람들과 함께 앉아 말을 나눌 때면 그는 눈을 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귀신이 법을 어긴 것에 화가 난 것이오.”라고 하였다. …동해에 가뭄이 삼 년 동안 계속되었다. 뒤에 비장방이……“동해군이 죄를 지어 내 지난 날 그를 잡아다 갈피호 근처에 묶어 두었었소. 지금 그를 풀어 주어야겠소.” 그리고 동해군에게 비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즉시 큰 비가 내렸다.<sup>56)</sup>

“동해군이 죄를 지어 내 지난 날 그를 잡아다 갈피호 근처에 묶어 두었었소. 지금 그를 풀어 주어야겠소.” 그리고 동해군에게 비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즉시 큰 비가 내렸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장방은 가뭄에 시달리는 동해 백성들을 위하여 향요와 제세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비장방>검토는 원본 문제와 대상 텍스트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서보다는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을 더 주목하며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비장방>의 이 대목은<갈현>과 더불어 다른 어느 작품에서보다도 제세와 향요 두 모티프가 간명하지만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 제세향요라는 이름이 왜 거명되었는지를 잘 환기시켜 준다.

55) “汝南歲常有魅，作太守章服，詣府門椎鼓者，郡中患之。時魅適來，而逢長房謁府君，惶懼不得退，便前解衣冠，叩頭乞活，長房阿之云：‘便于中庭正汝故形!’ 卽成老魅，大如車輪，頸長一丈。長房宴令就太守服罪，付其一扎，以救葛陂君。魅叩頭流涕，持扎植于陂旁，以頸繞之而死”， 오광정, 앞의 책, 199쪽에서 재인용.

56) “長房乃行符收鬼治病，无不愈者。每与人同坐共語，而目瞑訶遣。人間其故，曰：怒鬼魅之犯法耳。…東海大旱三年。長房后到東海，見其民請雨，謂之曰：東海君有罪，吾前繫於葛陂，今當赦之。令其作雨，於是卽有大雨”， 갈홍, 앞의 책, <호공>, 346~348 / 350 쪽.

(2) 누락된 작품들

《신선전》에는 오광정이 제세향요 모티프를 예시하면서 누락한 작품으로 <董奉>과 <王遙>가 있다.

① <董奉>

<동봉>은 동봉의 도술 발휘에 관련된 6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발단에서 동봉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으며 죽은 두섭을 살려내고 그 후 시해선이 된 뒤, 나병환자를 고쳐주는데 다음 인용에서 濟世 모티프를 더욱 잘 확인할 수 있다.

i) 그 뒤 자주 가뭄이 들어 온갖 곡식이 말라 타들어가자, 현령 정사언이 강기에게 말하였다. “동봉은 도술이 있으니 능히 비를 내리게 해줄 수 있으리라.” 이에 술과 포를 싣고 동봉을 만나 큰 가뭄이 일어났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동봉이 아주 쉽게 허락하였다.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고는 지붕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가난한 집들은 그 지붕이 모두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이를 피할 수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현령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선생께서 그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들 집을 잘 수리해 주겠습니다.” ……그날 밤 과연 큰비가 내렸는데 그 수량이 어디에나 풍족할 만큼 되었다.<sup>57)</sup>

ii) 동봉은 다시 산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을 위하여 병을 고쳐주며 그 값으로 돈이나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중병에 걸린 자를 낫게 해주고는 그에게 살구나무 다섯 그루씩을 심도록 하고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한 그루씩 심도록 하였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르자 거의 10만여 그루가 되어 울창하게 숲을 이루었다. ……동봉은 그 살구를 팔아 얻은 곡식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고 떠돌며 고생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렇게 한 해에 3천곡씩 소비하여도 오히려 아주

57) “后常大旱，百穀焦枯，縣令丁士彦謂綱紀曰：董君有道，必能致雨。乃自賚酒脯見君异，說大旱之意。君异曰：雨易得耳。因仰視其屋曰：貧家屋皆見天，不可以得雨，如何？縣令解其意，因曰：先生但爲祈雨，當爲架好屋。…其夜，大雨高下皆足”，갈홍, 같은 책, <董奉>, 375 / 379쪽.

많이 남을 정도였다.<sup>58)</sup>

i)에서 보듯, 가뭄에 시달리는 민초들을 위해 비를 내리게 하고 현령으로 하여금 집을 수리하게 하며, ii)에서 보듯 질병을 고쳐주고 살구나무 숲을 이루어 가난을 구제한다. 이러한 국면은 인용에서 생략한 부분을 포함 아주 구체적이어서(張道陵)의 추상적인 제세 의지와 대조되며, 《신선전》 작품들의 일정한 爲民經世의 경향을 주목하게 한다. 다음 대목은 향요 모티프의 발현이다.

iii) 또 현령의 친척 집안에 딸이 있었는데 그가 사악한 정령의 귀신이 들려 백방으로 치료해도 고쳐지지 않자 동봉에게 “만약 능히 그 아이를 고쳐 준다면 그대의 아내로 삼아 주겠소.”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동봉이 즉시 그 여자를 위하여 귀신에게 호통을 쳤다. 그러자 크고 흰 거북이가 나왔는데 그 길이가 6척이나 되었으며 땅을 기어 병자의 집 문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동봉이 거북이를 죽이게 하자 그 여자의 병이 즉시 나왔다. 이리하여 드디어 그 여자를 아내로 맞게 되었다...<sup>59)</sup>

이러한 향요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보답으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결말이다. 세속의 연분에 초탈하는 경향의 다른 작품과는 대조되는 국면이다. 이러한 향요 양상은 선화와 다른 지괴 작품들과의 상호 영향을 살펴되거나, 선화의 발전과정을 탐색하는 고려에서 한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王遙〉

왕요는 ...병을 고치는데 자못 능력이 있어 그 어떤 병도 치유하지

58) “又君昇居山間，爲人治病，不敢錢物，使人重病愈者，使栽杏五株，輕者一株。如此數年，計得十萬余株，鬱然成林。……君昇以其所得糧穀賑救貧窮，供給行旅，歲消三千斛，尙余甚多”，갈홍, 같은 책, 375~376 / 379쪽.

59) “縣令親故家，有女爲精邪所魅，百不能治，以語君昇：若能得女愈，當以侍巾櫛。君昇卽爲君勅諸魅。有大白鼈，長丈六尺，陸行詣病者門，君昇使人斬之，女病卽愈。遂以女妻之”，갈홍, 같은 책, 377 / 379쪽.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는 치료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었고, 부적을 물에 던지는 일도, 침이나 약을 사용하는 것도 없었다. 그가 병을 치료할 때는 단지 8척의 헝겊으로 이를 땅에 펴고 앉아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면 곧바로 병이 나아 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중 사악한 귀신이 재앙을 부려 병에 걸린 자의 경우, 왕요가 땅에 감옥을 그려 그 요괴를 불러내면 모두가 동물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 그중에서도 혹 여우나 이리 큰 자라, 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에 그들을 베어 불로 태워 버리면 병든 자가 즉시 나왔다.”<sup>60)</sup>

〈왕요〉에도 제세와 향요 두 모티프가 병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압하는 방식이다. ‘그는 치료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었고, 부적을 물에 던지는 일도, 침이나 약을 사용하는 것도 없었다. 그가 병을 치료할 때는 단지 8척의 헝겊으로만 시도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양상이며 다른 사례보다 더 흥미를 끈다.

### 3. 결론

이상으로 《신선전》 연구의 일환으로 《신선전》에 관련된 오광정의 선화 서사 모티프 연구를 검증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지만 신선 작품의 서사 모티프 연구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창작된 역대 신선 작품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데 무척 유효하다. 서사 모티프 자체가 작품의 가치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후대 작가들에게는 다른 관습과 더불어 발상을 인도하고 촉진하는 주요 원천이었고, 연구자에게는 작품의 서사구조 파악에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오광정이 신선 관련 작품의 서사 모티프로 제안한 ‘下凡歷劫’、‘悟道成仙’、‘成仙考驗’、‘濟世降妖’ 네 가지는 이 부문 연구의 개가로, 신선 작품의 연구와 그 계

60) “王遙者，…頗能治病，病无不愈者。亦不祭祀，不用符水針藥，其行治病，但以八尺布帛，敷坐於地，不飲不食，須臾病愈，便起去，其有邪魅作禍者，遙盡地作獄，因招呼之，皆見其形物入在獄中，或狐狸羅蛇之類，乃斬而燔…燒之，病者即愈”， 갈홍, 같은 책, 312/314쪽.

보를 통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고의 《신선전》에 관련된 下凡歷劫 成仙考驗 濟世降妖 세 모티프 검토는 그 성과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그 성과가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게 하기 위하여 몇몇 부수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이다.

첫째, 단일 모티프가 아니라 복수 모티프가 개입되어 있는 작품일 경우, 그 주력 모티프의 사례로 예시하고, 복수 모티프 구조를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하여 조명하는 작업이 후속되었으면 한다. 문학사의 발전과 맞물려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작품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검토한 대로 <壺公>은 제세와 적세도탈 모티프뿐만 아니라 성선고힘과 제세향요 모티프들도 서사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작품이었으며 주력 모티프는 성선고힘이었다. <劉安>은 성선고힘 모티프뿐만 아니라 팔공의 도래와 팔공이 회남왕을 도탈시키는 국면을 고려하면 下凡歷劫 謫世度脫 모티프의 정치 형이 병치된 작품이었다. <葛玄>은 제세향요 모티프와 성선고힘 모티프가 병렬되어 있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모티프 연합 내지 혼합 작품은 작품의 가치와 함수 관계가 아니지만 서사구조에 복잡성을 증진하면서 작품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신선 작품에서 제목의 인물이 그 작품의 주인공이며 서사가 그 주인공의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어, 오광정은 모티프의 사례 예시에서, 해당 모티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주인공이나 혹은 그의 행위를 주목하였다. 그런데 작중 실제에서 제목의 인물과는 달리 주인공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작품 선정과 더불어 예시에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제목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참조하면서도 작품의 서사 전체를 고찰하여 주인공을 확인하고, 그 주인공의 행위를 지배하는 모티프를 전제로 하여 그 작품을 예시하였으면 한다. 성선고힘 모티프의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로 <陳安世>의 진안세 관련 서사를 예시하였는데, 이 작품은 진안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관속평일 수 있으며, 진안세 관련 서사는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에 해당하였다. 작지만 이러한 문제점과 착오는 작품보다는, 대상 인물이 제목이자 주인공인 傳의 특성에 따라 작품의 실제에 좀 소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오광정은 성선고험 모티프에 내부 계열을 설정하였는데, 서로 다른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도였다. 그런데 위 〈陳安世〉 중 진안세 관련 모티프의 계열 구분 문제점과 같은 것이 몇 곳에서 점검되었다. 〈李阿〉의 이야기는 고강이 수행하여야 할 고험을 시도하지 않았기에, 스승이 설정한 시험에 응하며 고난을 극복하거나 실패하는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이라고 하기 어렵고,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李八百〉을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라고 하였으나 당공방의 행위는 일단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이었으며, 결국 이도 의문되었다. 결말에 이르기까지 양자는 사제관계가 아니라 머슴과 주인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또 〈葛玄〉은 ‘특히 그는 병을 치료하는 일과 귀신을 불러 이를 탄핵하는 술법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에서 보듯, 항요뿐만 아니라 제세도 밀접하게 병렬되어 있었다. 즉 제세항요 계열이었다. 〈張道陵〉은 제세만이 아니라 항요도 나타나며, 제세항요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費長房〉의 경우, 《후한서·방술전》의 〈비장방〉을 텍스트로 삼아 항요의 사례로 지목하였으나, 《사고전서》《신선전》의 〈비장방〉에는 제세와 항요 두 모티프가 병렬되어 있었으며, 〈갈현〉과 더불어 다른 어느 작품에서보다도 제세와 항요 두 모티프가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넷째, 모티프의 내부 계열 구분에서 노정되었듯이 모티프들의 계열 구분을 보다 합리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정들에 적합한 계열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하범역접의 적세도탈 모티프는 성취 형보다는 실패 형이 우세하기도 하며 모티프 명칭에서 성취와 실패를 알 수 없기에 이 둘을 계열로 설정하면 좋을 듯하다. 성선고험 모티프에는 기존의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과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는 계열’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성격들이 있었다. 성선고험 모티프의 개념을 확대하고 계열을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명사가 설치한 갖가지 시험을 통과하느냐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로만 규정하지 말고, ‘명사가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이적을 구현하기도 한다’를 개념에 추가하고, ‘사부가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이

적을 시현하는 계열을 추가하였으면 한다. 〈李阿〉와 〈劉安〉에서 살펴보았듯, 스승의 제자 고희이라기보다는 제자로 하여금 자신을 절대 신뢰하게 하려는 신선 입증에다가 또 스승이 제자가 수행하여야 할 고희를 시도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들을 성선고험 모티프에 제대로 포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 '사부에게 절대 신임을 표명하며,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陳安世〉에서 검토되었듯 두 계열이 병렬된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부인지 모르면서 고희 받는 계열'을 추가할 필요도 있었다. 〈진안세〉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팔백〉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또 성선고험 모티프도 크게 성취 형과 실패 형을 설정하여 분류하는 게 좋겠다.

다섯째, 모티프의 작품 예시에서 누락된 작품들이 있었다. 下凡濟世의 사례로 주목하여야 할 〈衛叔卿〉이 있었다. 성선고험에서 누락된 작품들은 〈壺公〉과 더불어 〈馬鳴生〉과 〈東郭延〉이다. 〈마명생〉은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었으며, 〈淮南王〉과 〈薊子訓〉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동곽연〉도 '사부를 지성으로 시봉하는 계열'이었는데, 자신만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동문을 위한 정리를 구현하고 있었으며, 예시에서 〈마명생〉보다 앞세워야 할 것 같았다. 濟世降妖 모티프에서도 누락된 작품들이 있었다. 〈董奉〉과 〈王遙〉였다. 〈동봉〉은 濟世 모티프의 사례였고, 선화가 갈래를 달리 하는 다른 지괴 작품과의 연계나 상호 영향의 고찰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이었다. 〈왕요〉에는 제세와 향요 두 모티프가 병렬되어 있었으며, 제세와 향요의 방식이 다른 작품과 달리 평범한 일상성 사물인 형겅이 제사와 부적 등을 대신하고 있어 역시 예시로 주목할 만하였다.

#### 〈參考文獻〉

- 王明, 《抱朴子內篇校釋》, 北京·中華書局, 2007.  
 李昉, 《太平廣記》, 臺北·文史哲出版社, 1981.  
 後漢書, 景仁文化社 影印本.

- 吳光正, 《中國古代小說的原型与母題》,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2.
- 朱迪光, 《信仰·母体·叙事中國古典小說新探索》,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胡孚琛, 《魏晉神仙道教》, 北京·人民出版社, 1991.
- 陳飛龍, 《葛洪之文論及其生平》, 臺北·文史哲出版社, 1980.
- 小南一郎著/孫昌武 譯, 《中國的神話傳說与古小說》, 中華書局, 1993.
- 孫遜, 《中國古代小說與宗教》, 上海·復旦大學出版社, 2000.
- 徐儀明/冷天吉, 《人仙之間》, 開封·河南大學出版社, 1998.
- 林辰, 《神怪小說史》, 杭州·浙江古籍出版社, 1998.
-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南開大學校 出版部, 1984.
- 候忠義, 《中國歷代小說辭典》, 雲南人民出版社, 1986.
- 葛洪 찬 / 임동석 역주, 《신선전》, 서울·고즈윈, 2006.
- 한용환,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서울·문예출판사, 2002.
-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민음사, 2005.
-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서울·푸른숲, 2002.
- 전인초, 〈神仙傳研究〉, 《연세논총》 1985.
- 한경아, 《神仙傳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8.
- 윤찬원, 〈갈홍 신선사상의 형성과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 《도교문화연구》, 한국도교 문화학회, 2004.
- 줄고, 〈《신선전》 영물의 변화와 후대의 지속양상〉(《중국문화연구》 17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 12.
- 줄고, 〈《열선전》 영물의 정체와 형상화 양상〉(《중어중문학》 제37호), 한국중어중문학학회, 2005. 12.

#### 〈中文提要〉

本文针对吴光正在《神仙传》中所分类的叙事母题进行了探讨。他把历代仙话故事分为四个母题, 即‘下凡历劫’、‘悟道成仙’、‘成仙考验’、‘济世降妖’。分析包括《神仙传》在内的历代有关神仙的作品。吴光正所定义四个母题对探索仙话作品做出了一定的贡献。但他的研究成果中存在逻辑方面的问题, 并且有一部分作品尚未提及。其内容如下:

一、〈壶公〉〈刘安〉〈葛玄〉等作品中不止一个母题, 而是几个母题交织在一起, 有必要进行进一步的探讨。几个母题交织在一起的作品对研究后世的有关作品做出了一定的贡

献。

二、按照常规,一般作品题目的人物就是主角,但作品中其他的人物也可以是主角,因此,要用例子对以主角为中心的叙事母题进行分析。

三、吴光正将“成仙考验”母题分为‘对师父的至诚侍奉’和‘对师父绝对信任的方面’两方面,但对于这母题的分类须要进一步探讨。例如,〈李阿〉〈李八百〉都不属于这两种方面,因此,为了将母题分得更具体更合理,须要添加另一种类型。“成仙考验”母题中包含了‘明师为了让弟子对自己绝对信任,做出各样的异迹’型和‘不知师父而被考验’型。而‘谪世度脱’则要分为成功型和失败型。

四、存在分类错误的作品。例如,〈葛玄〉中的故事有成仙考验和济世两个母题,这两个母题同时存在,成仙考验型故事中有‘对师父的至诚侍奉’的例子。

五、吴光正没提到的作品也有。〈卫叔卿〉属于下凡济世型,〈壶公〉〈马鸣生〉和〈东郭延〉是成仙考验母题的例子。济世降妖型也有没提及的作品,例如,〈董奉〉和〈王遥〉。〈董奉〉属于济世型,〈王遥〉同时存在济世型和降妖型两种母题。

关键词: 母题, 叙事母题, 下凡歷劫, 悟道成仙, 成仙考验, 济世降妖, 谪世度脱, 下凡济世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2년 1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